

中 후강통 시행 6개월... 한국인 3만명 5조원 투자

〈상하이·홍콩증시 교차 거래〉

투자자 대부분 거액 자산 '큰 손'들

40~50대 많아... 일부선 "과열 주의"

중국 본토 주식 직접 거래의 길을 터준 후강통(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국내 '큰 손'이 몰려 들면서 국내 투자자가 시행 6개월간 후강통을 통한 중국 주식 거래 대금은 5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에서 후강통 직·간접 투자자 수는 3만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후강통 시행 5개월(95거래일)간 국내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4조 422억원(일평균 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거래대금 8884억원을 고려할 때 아직 집계되지 않은 최근 한 달(20거래일)치를 합치면 시행 6개월간 거래대금은 5조원을 넘는다라는 계산이 나온다.

후강통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국내 주식 투자자 평균 거래대금의 두 배를 웃돈다. 국내 투자자의 후강통 거래대금은 시행 첫 달 2803억원에서 2개월째 948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거래액은 3개월째 5000억원대로 떨어지고선 5개월째에 1조7718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전종구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국내 투자자들은 후강통을 통해 철도와 건축관련주 등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



상하이증권거래소(상), 후강통(중), 홍콩증권거래소(하)의 로고.

로드' 테마주를 많이 사들였고, 보험과 헬스케어 등 중국 경제 성장 유망 대항주도 많이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후강통'을 통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인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후강통 거래대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증권과 2위 유안타증권의 거래 고객은 현재 각각 1만명과 7000명을 웃돈다. 펀드나 랩 계좌 등을 통한 간접 투자자 6천 800명까지 포함하면 국내에서 후강통관련 투자자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후강통 투자자는 거액의 자산을 가진 '큰 손'이 대부분으로, 40~50대 비중이 가장 높고 30대 등의 젊은층도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는 당일매매가 허용되면 온라인 매매 중심으로 거래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당일 매수해 당일 파는 데이 트레이딩(초단타매매)은 할 수 없다.

일각에선 그러나 중국 증시가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나온다. 실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달 증시 과열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후강통 매수세는 지난 3월 23일 1106억원(약 19조3627억원)에서 지난달 16일 999억원(약 17조 4894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강통을 통한 외국인의 전체 매수 강도는 다소 약화했지만, 국내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수 강도는 오히려 강화했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중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과열된 종목도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투자자 매수 둔화

경제심리 지속 관망세 확산

실적 개선 종목 주목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국제금리 변화였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양적완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 추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부양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지수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찾았다.

국내주식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추후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발표의 이후 실망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83포인트 내린 2106.50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삼성전자가 경기 팽배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는 등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그동안 내추럴엔도텍의 가짜 배수수 파문으로 초래된 조정의 충격을 거의 회복하면서 700선을 돌파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열 행은 총재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 "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 여러가지 위험 요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했던 결과지만 앞으로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의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 지속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국내주식시장은 금리동결에 따른 변동성은 제한적이고 기존 주도주들의 기술적 반등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의 상승회복 분위기는 지속될 수 있지만 방향성을 제시할 만한 재료 부재로 인하여 상승 탄력은 둔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자별 매매 패턴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자의 매수 둔화와 기관투자자의 매도세는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의 박스권 상단을 낮춰 잡고 고점매도 저점매수 전략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연기금의 매매패턴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연기금이 최근 배당주 운용사를 선정하며 배당주에 대한 매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당 매력 높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동시에 배당 매력 낮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처분한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에 관심이 필요해졌다. 아울러 실적개선이 뚜렷한 종목군에 대한 선별적 투자와 변동폭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이익실현을 병행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해졌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저축은, 교통카드·신용 통합 '하이브리드 카드' 내달 출시

저축은행 중앙회, 15곳 참여의사 밝혀

교통카드와 일부 신용거래 기능을 담은 체크카드인 하이브리드 카드를 다음 달 출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15개 저축은행이 하이브리드 카드 출시에 최종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 카드를 내놓겠다고 밝힌 곳은 웰컴, 키움, 진주저축은행 등이다.

SBI 등 대형 저축은행도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어서 하이브리드 카드를 출시하는 저축은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그간 저축은행 카드의 한계로 지적된 생활 편의 기능을 보완한 게 특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2008년부터 체크카드를 출시했으나 발급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 이유는 교통카드 등의 기능이 빠져 있

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저축은행 하이브리드 카드에는 체크카드 기능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됐다. 한 달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거래도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BC카드와 제휴해 하이브리드 카드 결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웰컴 등 일부 저축은행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할 계획이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저축은행은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더 필요해 올 7월부터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는 큰 기대를 걸지 않으면서 일단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점을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저축은행 체크카드가 시중은행 것보다 입·출금이 편리하지는 않다"면서 "다만 새로운 먹거리인 만큼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중은행에서 발급한 하이브리드 카드.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고객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고객들은 하이브리드 카드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잠정 연기' 수익공유형 모기지 다음달 나올 듯

국토부 "우리은행 형편 고려 6월 검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빚으며 시범 출시가 잠정 연기됐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싼 변동금리로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상반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취급기관인 우리은행의 형편을 고려하면 6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금리 변동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이나 그 이상까지도 늘리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주기가 늘어날수록 변동 횟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금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가 모색 중이라는 이야기가 은행권 등에서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최초 7년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PIX·자금조

달비용지수)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는 폭을 '1%포인트'에서 '0.6~0.7%포인트' 정도로 낮춰 금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예초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지난 3월 말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대박'을 치면서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 이유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워낙 많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까지 처리하기에는 은행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또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목적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에 나오면 금융위와 국토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초회 공제 5만원 이상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자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